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가 합병을 공식화하면서 네이버가 독주 채비를 갖춘 국내 모바일 시장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26일 서울 소공동 더 플라자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합병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최세훈 다음 대표(왼쪽)와 이석우 카카오 대표. 사진제공 | 다음커뮤니케이션

다음-카카오 합병…네이버 독주 막을까?

공룡의 탄생…IT시장 지각변동 예고

인터넷포털 2위-모바일메신저 1위의 결합
8월 주주총회 열어 합병 절차 마무리 예정
모바일플랫폼·성장동력 등 부족한면 지원
네이버 견제·해외시장 공략 등 시너지 기대

네이버의 독주를 막을 또 다른 공룡이 탄생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는 26일 올해 초부터 나돈 합병설을 공식 인정했다. 다음과 카카오는 이날 서울 소공동 더 플라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법인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양사는 8월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 연내에 합병 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합병 형태는 기준주가에 따라 산출된 1:1.556의 비율로 피합병법인인 카카오의 주식을 합병법인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발행신주와 교환하는 방식이다. 통합법인의 명칭은 '다음 카카오'. 직원수는 3200명이며 시가총액은 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내 인터넷 포털 2위 기업과 모바일 메신저 1위 기업이 합치면서 국내 정보기술(IT)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PC온라인에 이어 모바일에서도 독주 채비를 갖춘 네이버의 파상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부족한 부분 채워 시너지

업계에선 양사의 합병을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 시너지를 내기 위한 '윈-윈 전략'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다음과 카카오는 인터넷 포털과 모바일 메신저 등 각 영역에서 견고한 입지를 구축해 왔다. 하지만 새롭게 추진한 사업들이 미진한 성과를 내며 '차세대 성장 동력 부재'라는 위험요소도 안고 있었다.

1995년 설립된 다음은 한메일과 카페, 미디어다음, 검색 등 국내 인터넷 서비스의 새 장을 열었고, 포털 부문 부동의 2위 자리를 꿰찼다. 하지만 변화하는 환경엔 적응하지 못했다. 모바일 플랫폼으로의 확대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대표적인 서비스가 2000만 가입회원을 모았지만 실제 이용인구는 350만에 그치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 '마이피플'이다.

2006년 출범한 카카오의 경우엔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새 시대를 활짝 열었다.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카오스토리'까지 연타석 홈런을 터뜨리며 모바일 플랫폼 시대 최강자로 우뚝 섰다. 하지만 이후 새 성장동력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야심 차게 출시했던 콘텐츠 서비스 '카카오 페이지'는 본궤도에 오르지 못했고, 해외시장에서도 카카오톡이 경쟁사 네이버의 '라인'에 못 미치는 성과를 거뒀다.

●새 돌파구 마련할까

다음과 카카오가 주춤하는 사이 인터넷 포털 절대강자 네이버는 모바일 포털에서도 강력한 1위 자리를 확보했다. 여기에 모바일 메신저 '라인'과 SNS '밴드' 등을 앞세워 영역을 확장하며 독주 채비까지 갖췄다. 다음과 카카오 입장에선 새 돌파구 마련이 절실했다.

양사의 합병은 향후 포털과 모바일 시장에 일대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선 카카오가 가진 모바일 플랫폼 영향력에 다음의 콘텐츠와 마케팅이 합쳐져 네이버 독주에 제동을 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해외시장 공략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통합법인은 다음과 카카오가 당분간 독자성을 유지하되, 공통부문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부문부터 순차 통합해 나갈 계획이다.

최세훈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는 "같은 업계에 있으면서 그동안 많은 제휴 모델을 함께 고민했고, 이번 합병도 거기서 나온 결과다"며 "양사 모두 잘 못하는 부분도 있고 잘하는 부분도 있다. 여기서 강점을 결합하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석우 카카오 대표도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두 회사의 강점을 결합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장기 목표는 지난해 발표했던 수익을 내는 100만 파트너를 만들고 연간 매출 10조원 달성이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서울대·삼성SDS·NHN 동지→모바일시장 최고 라이벌

▮IT 두 거장의 '장군! 멍군! 스토리'

김범수 의장 "정박한 배는 싫다" 독자노선
카카오 설립…메신저로 스마트폰시장 돌풍
네이버 이해진 의장 라인·밴드 연이은 히트

김범수

이해진

국내 IT시장에 지각변동을 몰고 올 다음과 카카오 합병이 공식화되면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의장의 맞대결이 다시 금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합병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카카오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합병 뒤 최대주주는 김 의장이다. 현재 다음의 최대주주는 이재웅 창업자(13.67%)이고, 카카오의 최대주주는 김 의장(29.24%)이다. 하지만 양사 합병이 마무리되면 최대주주는 김 의장(22.23%)이 된다. 더욱이 김 의장이 100% 소유한 케이큐브홀딩스의 주식을 더할 경우 보유 지분은 약 40%로 늘어난다. 이 때문에 이번 합병을 카카오의 우회 상장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번 합병으로 김 의장은 동지에서 적이 된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의 경쟁영역을 확대하게 됐다.

두 사람의 인연은 오래됐다. 서울대 86학번 입학동기이자, 1992년 나란히 삼성SDS에 입사하며 서로를 알게 됐다. 그리고 90년대 후반 '닷컴 열풍'을 타고 창업 전선에 뛰어든다. 먼저 회사를 연 쪽은 김 의장. 그는 1998년 '한게임'을 창업해 국내 최대 게임 포털로 키워냈다. 이 의장은 1999년 '네이버'를 창업해 인터넷 포털 시장 경쟁에 뛰어들었다.

서로 다른 영역에 있던 두 사람은 2000년 국내 인터넷 시장의 지형을 송두리째 바꾸는 역사적 빅딜을 성사시킨다. '네이버'와 '한게임'의 합병. 여기서 태어난 것이 공룡 기업 'NHN'이다. 두 사람은 2000년대 초중반 다양한 포털이 경쟁하던 격랑을 헤치며 '네이버'와 '한게임'을 국내 최고의 플랫폼으로 키워냈다.

동지였던 둘의 관계에 변화가 시작된 것은 2007년. 당시 NHN USA 대표를 맡고 있던 김 의장이 홀연 회사를 떠나면서다. 이 의장은 이후 NHN 이사회 의장으로 네이버를 국내 최고 인터넷 포털로 키워낸다. 반면 "정박한 배에 있는 것이 싫다"며 NHN을 떠난 김 의장은 3년 동안 두문불출하며 새 도전을 모색했다. 그리고 스마트폰 등장으로 큰 변화가 일던 2010년, 오랜 공백을 깨고 '카카오'로 복귀한다. 여기서 만든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은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일대 돌풍을 일으킨다.

이후 두 사람은 모바일 시장에서 장군, 멍군을 주고받으며 격돌한다. 김 의장이 '카카오톡'으로 장군을 외치자 이 의장은 '라인'으로 맞받았다. 이번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은 이 의장이 '라인'에 이어 '밴드' 등을 연이어 히트시키자 김 의장이 내놓은 승부수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모바일로 빠르게 영역을 넓히며 카카오를 위협하고 있는 네이버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김 의장의 승부수가 어떤 결과를 낳을 지 관심을 모은다.

김명근 기자

금감원, 저축은행 신용대출금리 20%대 하락 유도

현 30.4%서 0.6~2.4%p 떨어질 전망

저축은행들의 신용대출금리가 20%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대출금리 비교공시를 강화하고 신용평가시스템(CSS)을 개선해 금리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를 현재 30.4%에서 0.6~2.4%p 가량 떨어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의 신용대출규모는 5조2754억원. 평균 금리는 30.4%였다.

저축은행들이 획일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10%에서 20% 초반대의 중금리대 개인신용대출 공급을 늘리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기본 조달 금리에 목표이익률, 조정금리 등을 반영해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모범규준을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큰 틀을 제시하지만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 결정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6월 초까지 비교공시 규정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대출금리 비교공시의 정확성을 높인다. 금융소비자들의 대출상품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 최초 구축된 지 6년을 넘긴 CSS시스템을 8월 말까지 개선하고, 9월부터 저축은행들이 개선된 CSS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진수 금감원 부원장보는 "신용도를 바탕으로 금리를 산정토록 유도함으로써 일부 금융소비자들이 중금리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0.6~2.4%p 가량 인하될 경우 이자부담 경감 규모는 연간 300~12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원장보의 말에 의하면 저축은행들 역시 정교한 CSS를 활용함으로써 개인신용대출의 부실율을 0.4%p 가량 줄이고, 대출 승인율을 24.7%p 가량 높일 수 있게 된다. 김 부원장보는 "신규고객 창출과 부실율 하락으로 연간 1000억 원 정도의 수익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

현대차, 국가 안전인프라 구축 성금 100억 기부

현대자동차그룹(회장 정몽구)은 국가 안전 인프라구축에 힘을 보태기 위해 23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100억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국가 안전 인프라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20일 열린 경제5단체장 회의 등 경제계의 솔선수범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금은 국가안전인프라 구축, 세월호 사고 유가족 지원, 의료 지원 등 사회 안전시스템 강화를 위한 분야를 중심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생산 현장과 사업장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표준화된 안전작업방법 준수, 전 임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시설 재점검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트위터@simss23

동원F&B '리챔 자연레시피' 출시

동원F&B가 업계 최초로 합성첨가물 0%의 고급캔햄 '리챔 자연레시피'를 출시했다. 시중에 유통되는 무첨가 콘셉트의 캔햄들도 산도조절제 등 일부 합성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지만 '리챔 자연레시피'는 합성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았다. 또 돼지고기 함량이 95% 이상이며, 마블링이 좋은 돼지 앞다리살을 사용해 육질이 부드럽다는 것이 특징이다.

사조해표 1분기 1656억 매출…실적 3% 상승

종합식품전문기업 사조해표는 가공식품 부문의 판매실적 향상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26일 밝혔다. 사조해표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약 1656억원으로 전년 동기 매출액 1610억원 대비 약 3% 가량 상승했다. 2014년 1분기 사조해표의 실적개선 요인으로는 고추장, 된장 등 장류와 작년 새롭게 출시한 연어캔의 약진을 들 수 있다. 2010년 장류 시장에 진출한 사조해표는 전년도 3월 시장점유율 7%에서 올해 같은 기간 13.2%로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제일제당, 대상이 차지하고 있는 장류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서울힐튼, 6월 한달간 롬바르디아 요리 선봬

밀레니엄 서울힐튼 이탈리아 식당 일폰테에서는 6월 한 달간 이탈리아 산업경제의 중심 도시 밀라노가 위치한 롬바르디아 지방의 음식을 선보인다. 북 알프스산을 끼고 스위스와 인접해 있는 롬바르디아 지방은 이탈리아에서도 손꼽히는 축산과 농업의 중심지로 유명한데, 양질의 와인과 치즈의 산지로도 정평 나있다. 이들(와인&치즈)을 이용한 요리가 롬바르디아 요리의 특징 중의 하나다.

경정 출주표 | 27일

번호	기수	선수	나이	체중	평균 착순점	승률	연대율	3연대율	모터 번호	모터 연대율	금일 경주	이	송	어
제[1]경주 일반경주(1,800m)11:20														
1	1	김종목	40	54	5.83	22.2	38.9	55.6	86	30.4	7	★	◎	◎
2	4	지현욱	36	62	3.40	6.7	20.0	26.7	12	33.3	9		○	
3	2	박석문	51	58	6.31	18.8	37.5	68.8	23	30.4		◎	★	★
4	3	박설희	32	56	4.38	0.0	23.1	46.2	81	36.4	8	○	△	
5	1	박규순	43	49	4.08	8.3	25.0	33.3	72	40.0				○
6	6	박재경	34	60	4.46	7.7	15.4	38.5	77	35.0	10	△		△
제[2]경주 일반경주(1,800m)11:45														
1	7	유해광	30	63	6.24	35.3	47.1	58.8	52	34.8		◎	★	○
2	1	권명호	45	56	6.78	44.4	44.4	66.7	107	29.2		★	◎	★
3	11	김희영	26	45	3.06	0.0	18.8	25.0	102	39.1	10			
4	1	우진수	38	54	3.71	14.3	21.4	21.4	32	44.0	9	○	○	◎
5	7	손동민	32	53	4.69	7.7	23.1	38.5	71	34.8	11	△	△	△
6	9	신현경	34	52	3.50	0.0	7.1	35.7	18	41.7	8			
제[3]경주 일반경주(1,800m)12:10														
1	6	권일혁	33	58	6.08	23.1	46.2	61.5	39	23.8	10	◎	★	
2	12	유석현	28	55	3.54	7.7	15.4	30.8	101	50.0			○	★
3	1	오세준	39	62	4.39	11.1	33.3	38.9	108	31.8	9	△	◎	◎
4	11	김선웅	30	62	2.56	0.0	6.3	6.3	97	43.5				
5	1	김대선	44	55	5.72	22.2	44.4	61.1	59	28.6	11	★	△	△
6	4	민영건	38	58	5.08	15.4	23.1	38.5	42	25.0		○		○
제[4]경주 일반경주(1,800m)12:35														
1	10	이경섭	31	58	6.21	14.3	42.9	64.3	26	36.4		◎	★	◎
2	3	이주영	32	56	4.88	11.8	29.4	52.9	87	29.2		★	◎	★
3	10	구본수	32	58	5.77	30.8	46.2	53.8	67	36.4	11		○	○
4	4	김경민	37	56	4.38	7.7	15.4	30.8	2	29.2		△		
5	5	이종인	36	56	5.21	0.0	36.8	52.6	100	33.3	10	○	△	△
6	11	기광서	30	56	4.17	16.7	25.0	41.7	99	34.8				
제[5]경주 일반경주(1,800m)13:15														
1	11	정훈민	28	54	3.53	0.0	6.7	40.0	75	33.3				
2	2	류성원	44	63	5.88	17.6	35.3	52.9	61	47.8		★	◎	★
3	2	김기한	41	53	4.29	14.3	21.4	42.9	62	40.9	11	◎	★	◎
4	1	황만주	43	61	3.79	7.1	21.4	28.6	63	39.1		○	○	△
5	5	김도환	38	60	5.54	7.7	38.5	69.2	20	40.0		△	△	○
6	4	신동길	36	58	5.13	18.8	37.5	37.5	24	22.7				
제[6]경주 일반경주(1,800m)13:40														
1	8	송효석	34	55	3.27	0.0	20.0	20.0	6	40.9		△	◎	△
2	8	이동준	29	55	3.17	0.0	22.2	22.2	51	36.4	15	★	★	○
3	2	최재원	46	57	4.71	11.8	23.5	47.1	109	41.2		◎	○	★
4	1	권현기	43	59	3.71	0.0	0.0	28.6	58	23.1				
5	4	이창규	35	58	4.62	7.7	23.1	38.5	74	26.1		○	△	◎
6	11	박진서	33	54	3.55	9.1	9.1	18.2	53	12.5				
제[7]경주 일반경주(1,800m)14:05														
1	1	강창효	41	60	5.67	20.0	33.3	60.0	91	26.1			★	
2	9	김지훈	28	59	4.33	25.0	25.0	33.3	104	36.4		◎	◎	△
3	5	여현창	35	59	5.50	18.8	43.8	62.5	33	38.1		○	△	★
4	1	김종목	40	54	5.83	22.2	38.9	55.6	86	30.4	1	★	○	◎
5	10	박준호	28	64	3.85	0.0	7.7	30.8	11	36.0				
6	1	정용진	42	56	5.76	23.5	35.3	58.8	89	33.3	15	△		○
제[8]경주 일반경주(1,800m)14:30														
1	3	박설희	32	56	4.38	0.0	23.1	46.2	81	36.4	1	△	△	△
2	9	신현경	34	52	3.50	0.0	7.1	35.7	18	41.7	2			
3	6	김동민	36	53	5.77	23.1	46.2	53.8	48	22.7		◎	★	◎
4	5	김희용	34	54	5.31	7.7	30.8	53.8	103	27.3		○	○	
5	2	김현철	45	54	5.78	27.8	38.9	55.6	1	20.0		★	◎	★
6	11	김지현	27	48	3.29	7.1	21.4	21.4	95	34.8	15			○
제[9]경주 일반경주(1,800m)14:55														
1	1	우진수	38	54	3.71	14.3	21.4	21.4	32	44.0	2	△	△	★
2	11	전정환	27	57	5.00	13.3	26.7	60.0	8	34.8				
3	2	최광성	40	60	5.47	26.7	26.7	46.7	60	28.6		★	★	◎
4	4	지현욱	36	62	3.40	6.7	20.0	26.7	12	33.3	1			
5	1	오세준	39	62	4.39	11.1	33.3	38.9	108	31.8	3	○	◎	△
6	3	박정아	35	49	5.53	31.6	31.6	47.4	4	24.0	15	◎	○	○
제[10]경주 일반경주(1,800m)15:25														
1	5	이종인	36	56	5.21	0.0	36.8	52.6	100	33.3	4	○	★	○
2	6	박재경	34	60	4.46	7.7	15.4	38.5	77	35.0	1			△
3	2	한 운	41	56	4.00	7.1	14.3	35.7	69	25.0		△	△	
4	6	권일혁	33	58	6.08	23.1	46.2	61.5	39	23.8	3	★	◎	◎
5	2	김정구	42	53	6.00	20.0	46.7	60.0	19	32.0		◎	○	★
6	11	김희영	26	45	3.06	0.0	18.8	25.0	102	39.1	2			
제[11]경주 일반경주(1,800m)15:55														
1	1	김대선	44	55	5.72	22.2	44.4	61.1	59	28.6	3	★	◎	★
2	7	손동민	32	53	4.69	7.7	23.1	38.5	71	34.8	2	◎	★	◎
3	12	박준현	30	57	2.54	7.7	7.7	23.1	92	27.3				
4	2	신동열	41	62	4.07	13.3	13.3	26.7	54	14.3				
5	2	김기한	41	53	4.29	14.3	21.4	42.9	62	40.9	5	○	○	○
6	10	구본수	32	58	5.77	30.8	46.2	53.8	67	36.4	4	△	△	△
제[12]경주 특선경주(1,800m)16:25														
1	2	이재학	41	54	8.82	58.8	76.5	82.4	14	56.0		◎	★	△
2	2	김종민	37	54	7.56	5.6	66.7	83.3	7	65.2		★	◎	★
3	7	배혜민	33	55	7.44	33.3	66.7	83.3	27	58.3		△	○	◎
4	5	이승일	35	57	7.28	38.9	61.1	72.2	34	58.3		○	△	○
5	2	김정민	38	57	6.59	17.6	41.2	82.4	80	40.9				
6	1	조현귀	46	60	5.67	20.0	40.0	46.7	45	65.2				
제[13]경주 특선경주(1,800m)16:55														
1	4	어선규	36	57	7.89	27.8	55.6	77.8	15	47.8		★	★	★
2	1	나병창	39	56	7.50	44.4	61.1	77.8	68	41.7			◎	◎
3	1	서화모	40	56	6.41	23.5	41.2	70.6	36	63.6		△	○	
4	1	김창규	43	61	7.27	27.3	54.5	72.7	3	60.0		◎	△	○
5	6	손지영	29	51	7.78	38.9	72.2	83.3	57	42.3		○		
6	1	이승석	43	58	6.35	23.5	47.1	52.9	56	56.5				△
제[14]경주 특선경주(1,800m)17:25														
1	1	길현태	38	56	8.33	44.4	72.2	77.8	70	47.8		★	◎	◎
2	1	이태희	43	55	7.44	38.9	55.6	66.7	21	54.5		◎	★	△
3	2	이용세	42	57	6.81	25.0	50.0	75.0	50	59.1		△	△	
4	2	김효년	40	55	6.94	27.8	44.4	72.2	44	65.0		○	○	★
5	3	이지수	34	60	5.50	7.1	35.7	57.1	79	50.0				
6	1	정민수	39	59	6.83	16.7	50.0	72.2	10	56.5				○
제[15]경주 일반경주(1,800m)17:55														
1	3	박정아	35	49	5.53	31.6	31.6	47.4	4	24.0	9	△	◎	○
2	11	김지현	27	48	3.29	7.1	21.4	21.4	95	34.8	8			
3	1	정용진	42	56	5.76	23.5	35.3	58.8	89	33.3	7	★	★	★
4	1	한 진	38	58	6.72	22.2	66.7	72.2	96	40.9		◎	○	△
5	8	이동준	29	55	3.17	0.0	22.2	22.2	51	36.4	6	○	△	◎
6	1	임인섭	40	61	3.77	0.0	0.0	30.8	46	33.3				

★우승후보 ◎우승도전 ○상대 △복병. 출주표는 경정운영본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상제공 : 경정모터스(이경석, 송강호, 어상규)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트위터@simss23